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오는 14일 열려

일산 식사동 병원부지서 ... "복지사회구현의 첨병 기대"

지속적인 건립기금 확보방안 마련돼야

2천만 불자의 염원사업으로 지난 94년 이후 추진되어온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착공식과 축하공연이 오는 14일 일산의 식사동 병원부지에서 열린다.
본교가 주최하고 불교종합병원 건립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총동장회, 고양시를 비롯해 교계 언론사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 오후 2시 착공식, 3시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착공식은 홍승기(무역학)교수의 사회로 △경과보고 및 건물개요 설명회 △총보영화 상영 △오복님 이사장 추사 △승석구 총장 식사 △내빈 추사 △착공축포 순으로 진행되며, 2부 축하공연은 불자개그맨 김병조씨의 사회로 국악인 신영

희, 불자가수 장미화와 동곡국악관현악단 등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환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천병상(양방 8백, 한방 2백병상)·연결경 2만 7천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12층의 초대형 병원으로 오는 2002년에 완공해 2003년 부처님 오신날에 개원할 예정인 불교종합병원은 앞으로 세계화, 인간화, 정보화를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한·양방 협진체제의 특성화된 진료서비스와 선(禪)문화센터운영, 불자들을 위한 평생진료제실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불교정신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7개 병원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개인 2년전부터는 확보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집단을 의료 기술이 뛰어난 세계 각국의 특성화된 병원엔 연수를 보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구축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의학 전산망 구축을 통해 세계의학 정보 교류와 의료시스템 운영에도 최고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종합병원의 위대한 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공사기금의 마련방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본교는 발전기금으로 4백12억원 이상을 조성해왔고

2002년까지 1천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자금화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퍼스의 대학원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는 "불교종합병원이 학교발전의 대안이라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재정 확보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단 내부의 총무원장 직무정지 판결 문제도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착공식과 관련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건립 재정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2천만 불자와 함께 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자비의 벽돌 한 장 동참은 동' 등을 전개하는 등 전 종도의 의지와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전 불자의 염원인 병원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국인의 바램인 불교종합병원의 힘찬 출발과 완성을 기대해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개장 ... 지난 여름 방학중 시작된 만해광장의 야간 조명 시설 및 농구대 설치, 비덕공사가 끝나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양경인 기자 yangkyang@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민가협 3백회 목요일회	4면
‘핵’, 문제 없는가	5면
새책 발표한 박노해를 만나	6면
본사 수습기자 탈수습기	7면

보리수

노동의 의미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몇 년 전, '국제노동기구'의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명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잠재적 실업자인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지구적 실업이라 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대규모 실업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의 위기' 즉, '노동에 대한 인식의 위기'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찍이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노동의 소외는 더욱 심화되어가는 추세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노동은 인간의 본질능력을 대상화한다는 원의미를 상실한 채, 교환가치 또는 화폐가치를 지닌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임금노동으로 전락해 버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노동의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까지를 가르친다.
그 사회적 의미란 노동이 개인의 사회적 자아실현과 공동체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말한다. 종교적 의미란 노동이 '종교적 삶'을 위한 수단이고, 노동자가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며, 노동의 결과가 고통받는 중생에게 회향됨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들은 결국 노동이 단순한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도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1천 5백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20년간 관찰했는데 A그룹은 당장의 돈 때문에 직업을 택한 사람이 83%였고, B그룹은 하고싶은 일을 우선시한 사람이 17%였다.
그러나 20년후 그들중에서 1백1명이 성공했는데 그중 1백명이 B그룹에서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직업을 택할 때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돈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고 또한 하고 싶어하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직장에서는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도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BK21 철회해야”

지난 8·9일 전국대학생 총결기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집회를 열고 국보법폐지와 BK21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BK21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대학생들의 총결기와 투쟁대회가 지난 8일과 9일 진행됐다.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위사안들에 대해 학생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고 향후 공동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던 이번 총결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

은 각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다.
동대문과 명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대신민 선전전을 벌인 서울지역 1천여명의 학생들은 명동성당에 다시 모여 정리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서훈연 의장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빨리 철

폐시키는 것만이 분단된 이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현재의 대학을 대학답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또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대책위는 서울대에서 5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99청년학생문화제 '세상을 바꾸자'를 개최했으며, 9일 오전에는 여의도에서 'BK21 전면 무효화, 등록금 삭감, 국가교육재정 확충, 공공담대 민영화 저지, 졸속 초등교원정책 철회를 위한 국민대회'를 가졌다.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또한 지난 8일 불상 앞에서 '국가보안법완전 철폐,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학원자주화 투쟁 승리를 위한 민족동맹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10월 8·9일 총결기와 공동투쟁은 가을대투쟁과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동투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는 장기적인 대정부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교수회총회장에 심익섭 교수 선출

회장단·분과위원회 구성 마무리



심익섭 총회장

서울·경주 양캠퍼스의 교수회는 지난 8일 서울캠퍼스 사무실에서 합동대의원회를 열고 교수회총회장에 서울캠퍼스의 심익섭(행

정학) 교수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양캠퍼스의 교수회 총무에 각각 김무봉(서울캠퍼스 국문학), 조훈영(서울캠퍼스 물리학), 박상범(경주캠퍼스 경영학)교수등을 인선함으로써 양캠퍼스 교수회장단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전체 대의원 49명중 24명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양캠퍼스 교수회 산하에 각각 교권위원회, 복지위원회, 규정연구위원

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논의는 이번 주중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익섭 교수회총회장은 “그동안 교수회가 보여왔던 모습에서 벗어나 학교발전제에 이바지하고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내외의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교수들의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사사령

- ◆ 임 정기자
△김지혜(인문대 국어국문학부1)
△정미혜(인문대 국어국문학부1)
△최청호(자연대 수교1)
△이소라(상경대 관광경영학부1)
- ◆ 임 수습기자
△박현호(인문대 국어국문학부1)
-이상 7월 1일자
△김현중(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1)
-이상 10월 1일자
- ◆ 의원면직
△송재훈(경상대 경제통상학부2)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2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BK21 인문사회분야 사업 재공고

신청요건 대폭완화돼

그동안 교수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했던 두뇌한국21 사업중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육성방안이 지난 10월 6일 공고됐다. 또한 교육부는 종전의 핵심·특화분야 지원사업에서 남은 예산 1백억원으로 핵심분야 사업을 추가 공고했다.
다음달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12월 초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인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7년간 해마다 1백억원이 지원되며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수 등 규모에 따라 3억에서 1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고안에 따르면 당초 지원대상 부분인 신청분야와 연구업적 인정범위, 제도개혁부분에서의 조건을 대폭완화해 결국 이 사업이 나눠주기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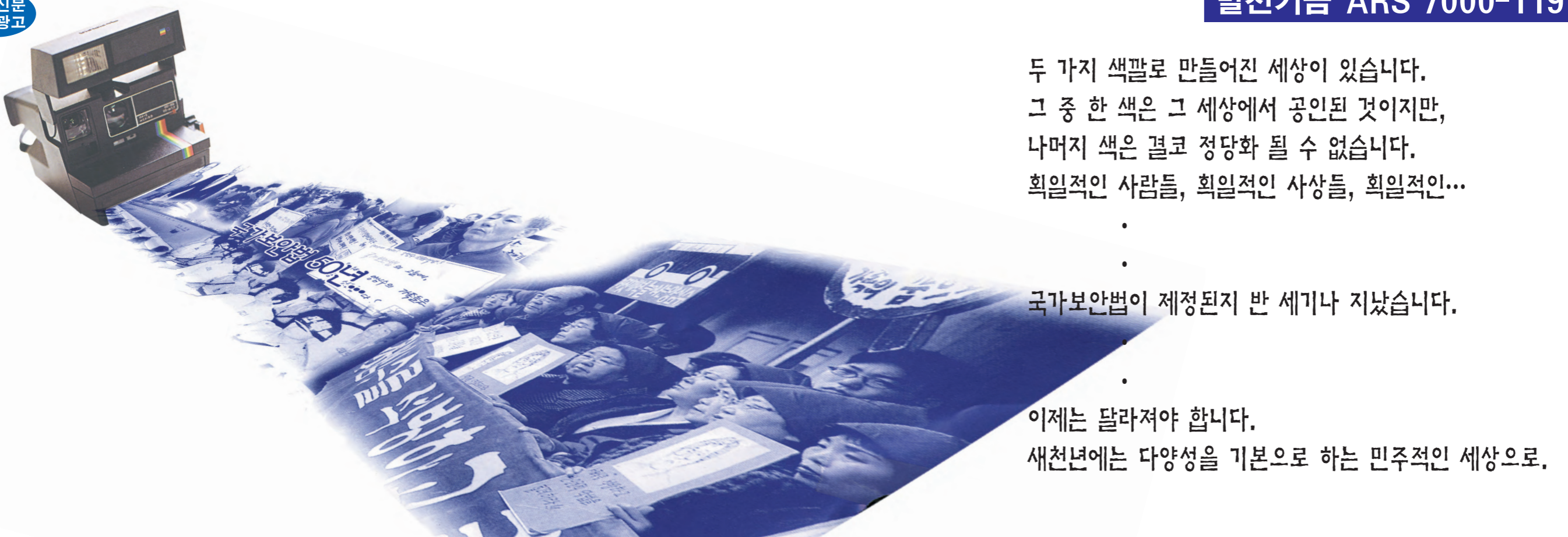
발전기금 ARS 7000-119

두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색은 그 세상에서 공인된 것이지만,
나머지 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희일적인 사람들, 희일적인 사상들, 희일적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반 세기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천년에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인 세상으로.

동대신문
기획광고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열려

오는 21일부터 중국 북경대서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대에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본교와 북경대 공동주최로 '전통문화와 현대화'라는 주제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민족정신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한중 전통문화의 현실적 의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본교에서는 송석구(철학) 총장을 비롯해 이종찬(국문학) 명예교수, 임기중(국문학), 송재문(윤리문화학), 박영환(중문학) 교수 등과 고려대의 윤사순(철학) 교수가 참가한다.

오는 12일 현성스님 초청 법회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주제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2일 오후 4시에 박형성(중앙승가대 총장)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회는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본교 교직원과 학생 및 일반인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인의 삶의 방향을 고찰하고 자기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취업대비 실전 모의면접 실시

오는 13일 오후 중앙강당에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취업지원팀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강당에서 실전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조유호(아남그룹 인사팀장), 한상훈(솔루션 사장), 이명숙(이토츠삼사 인사팀장), 박기환(한국전력 인사부장), 장재성(엘리트뱅크 전무) 등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개별면접, 집단면접, 집단 토의 면접 후 단계별 강령을 실시하며 서류 전형시 인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채점 기준 및 작성법을 강의한다. 이번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은 지난 4일 점수를 통해 20명을 선출했으며 '면접질라잡이'와 '코디북', '취업 파일' 등을 참관인과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처, 수해장학금 지급

지난 여름 수해학생 대상으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복지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수해장학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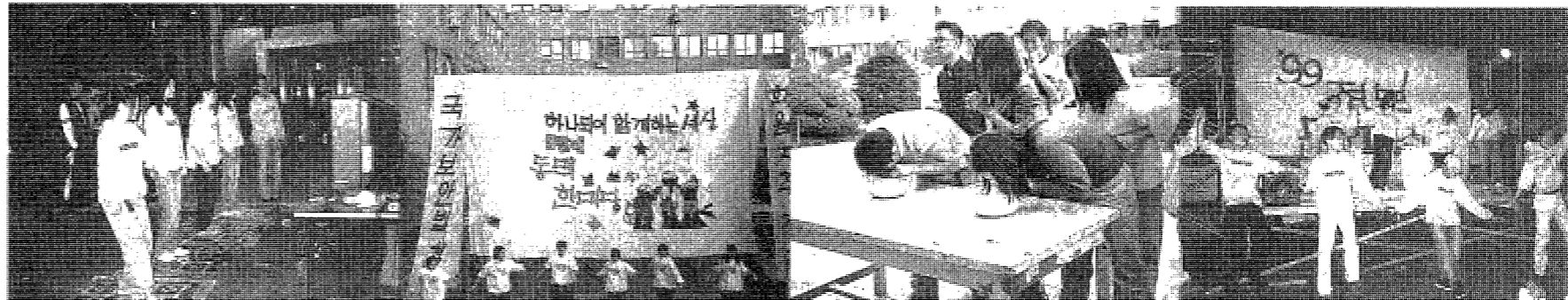
선발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에 내린 집중호우의 추석을 전후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보호자의 재산세가 8만원 이하이며 기타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5일까지 해당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갖춰 접수해 선발된 학생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5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5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장	신규백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국신문
편집국장	박성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7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0-1270 전화 (056)1774-2358 팩스 (056)1776-2357



총학·동연 가을대동제 오늘(11일)부터 시작

국보법 폐지 선언운동 등 내용 다양... 학생참여 유도 '숙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99 백산 예술제'를 개최한다.

'또 다른 세계로'라는 기조로 열릴 이번 행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장을 열기 위한 문예공연을 비롯해 이적 표현물 전시 및 북한 문화·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제전을 통해 지난 4일

부터 내일(12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통국 1999년 선언 운동'을 펼칠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추진되는 일정은 △여는 마당=오늘(11일) 오후 1시 불상앞에서 박터뜨리기, 길놀이 등 다채로운 문예공연 진행과 재황용 조형물

경연대회 △'배려라 국가보안법' = 오는 12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1만2천 행동을 날을 맞아 이적표현물·도서 전시, 북한 문화·영화상영 △'작은 소리, 큰 울림' = 오는 13일 락, 춤, 노래 등 민족통국 소모임 한마당 △달은 마당=오는 14일 불상앞 문예공연 등이다. 또한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야)4) =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동연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9 접합'이라는 주제로 배와 배사이를 이어주는 접합의 기능을 살려진 동국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전시회 및 선전거리, 장미전, 학술토론회, 놀이와 맛보기 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내용은 △열린 마당=오는 15일 기존의 녹두거리 축제와는 달리 녹두거리에서 학생회관으로 '들

어오는' 이벤트 마터 △거리마당=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동국관 앞에서 전시회, 선전거리, 바람소리라 장비전시회 △학술 토론회=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동국관(L401)에서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연구, 분석 △놀이마당=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탁구와 배드민턴 등 작은 체육대회와 전통혼례식, 테니스 코트에서 '코끼리배 테니스 대회' △맛보기마당=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학생회관 앞 △상영회=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데드헌터', 'The wall' 등을 비롯한 문화와 영화 상영 등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다항관 활용문제 난항 거듭

학교, "합의 이전에 공사안한다" ... 총학, "이미 공사계획 마무리"



총학이 다항관 교직원 식당 점거에 들어가면서 공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을 떠나 보리수는 학생들의 복지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당국은 "상복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리수의 역할을 더하거나 사방대 건물에 있는 학과실의 크기를 줄여 면적의 문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지만 학생회는 "차지 공간을 줄여 복지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보리수 공간에 대한 공사는 진행한 적이 없으며 예전에 합의된 사안대로 공간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유보 중"이라고 전해 보리수 공간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학생회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학교당국은 "보리수는 이미 학생회와 합의를 통해 1층에 배치하기로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방이었던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회는 "기존의 공간보다 축소된 하향 이동은 있을 수 없으며, 주방공간

을 떠나 보리수는 학생들의 복지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당국은 "상복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리수의 역할을 더하거나 사방대 건물에 있는 학과실의 크기를 줄여 면적의 문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지만 학생회는 "차지 공간을 줄여 복지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보리수 공간에 대한 공사는 진행한 적이 없으며 예전에 합의된 사안대로 공간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유보 중"이라고 전해 보리수 공간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학생회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학교당국은 "보리수는 이미 학생회와 합의를 통해 1층에 배치하기로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방이었던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회는 "기존의 공간보다 축소된 하향 이동은 있을 수 없으며, 주방공간

졸준위, 4학년 대동제 개최 내일부터 3일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노승수·화공4)는 내일(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4학년 대동제'를 개최한다. 4학년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강과 모의면접, 댄스제인 패션쇼, 세기말 졸업앨범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졸준위는 오는 30일까지 등 록금 납부시 일괄적으로 징수되었던 졸업앨범대와 졸업사업비 등의 중복 납부자를 우선으로 환불을 실시한다.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영수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졸준위 사무실로 가면 된다.

원총, 학대대표회의 진행 오는 21일 세미나실에서

대학원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과 박사과정)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대학원 1세미나실에서 2학기 학생대표회의를 개최한다.

각 학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예산변경 사항 심의 △회계적정안·심의 확정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과대 학대대표회의 성사·동맹휴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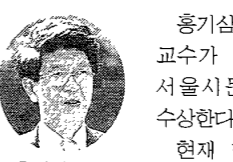
지난 5일부터 3일간 총투표 진행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정진·사, 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문과대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5일 문과대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직인원 총 37명 중 3명의 사고자를 제외한 34명 중 17명이 참석해, '총투표와 8일 하루 동맹휴업'에 대한 찬성 10표와 기권 7표를 얻어 총학생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결과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총투표의 집계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공약과 반대'에 관한 찬성 3백63표(92.4%)와 8일 동맹휴업 2백89표(73.5%)의 찬성으로 동맹휴업이 실시됐다.

지난달부터 문과대는 모집단위공약과 철폐와 문과대 발전위원회건설을 내용으로 천막농성과, 문과대 학생실 점거 등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홍기삼(국문학) 교수 서울시 문화상 수상



홍기삼 교수

홍기삼(국문학) 교수가 제 48회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한다. 현재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이기도 한 홍기삼 교수는 한국문학사와 문학평론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심화시키고 한국 문학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돼 이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공 및 학과결정

- 대상
 - 가) 96, 97, 98학년도 학부, 계열 신입학생중 금학기 2학년 재학생
 - 나) 97, 98, 99학년도 1학기 학부, 계열 편입학생중 금학기 2학년 재학생
 - 단, 선학전공의 승려, 미문화학, 물리학과(물리학과(주, 야), 아시아지역학(야), 컴퓨터정보통신학부(야) 제외
- 일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9. 10. 20(수) ~ 10. 22(금)
 - 나) 결정 및 학장발령 : 99. 10. 22(금)이전에 대학별로 공고함.
- 전공 및 학과결정 기본원칙
 - 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나)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각전공 및 학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다) 전공 및 학과결정 과정에서 특강(정공)과목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중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 1) 정공(학과)별 기준정원 : 95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2) 95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이 기준정원이 되며 그 후 신설, 변경된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 3) 우선배정기준 : 각 전공(학과)별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4) 제1지망에서 각 전공 및 학과의 우선배정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배정 기준
 - 가) 기준점을 포함한 3개학기 전체성적의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적용한다.
 - 1) 2학년 1학기 일반평점은 별도로 비교적용한다.
 - 2) 단, 신입학생 2학기 이수자는 성적평점시 3개학기 이수자의 하위에 둔다. (예)98년 1학년 1학기-98년 2학기-98년 1학기로 조기복합
 - 3) 2학년 1학기 일반평점은 재학생인원중 편입생의 비율을 산출후 각전공 기준정원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을 배정한다.
 - 나)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학과에 비추어 전제 성적순에서 본인의 순위를 인지로 희망 전공(학과)과 인지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다) 교부받은 신청원(OEM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수정 써인 팩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라) 본인이 소속 학부(계열)내의 정공(학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선택하여 동일전공(학과)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마) 작성시 완료된 신청원은 학과지도교수와 학과인원에 따라 본인이나 소속 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바)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도 원칙상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접수된 최종학위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정기간내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임의배정할 예정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결정

- 일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9. 11. 1(월) ~ 11. 3(수)
 - 나) 확정 공고 : 99. 11. 12(금) 이전에 교무처에서 공고함.
- 복수전공신청 기본원칙
 - 가) 선발인원 : 기존정원 100%이내에서 결정하며, 시설여건·교수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 나) 신청자격 : 95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
 - 다) 대상학과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단, 제한사항 있음
 - 라) 제한사항
 - 1) 한의학과, 외의과과목의 복수전공 불허
 -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 3)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과 학과과의 복수전공 불허
 -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지적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수용정원 초과시 선발원칙
 - 가)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 나)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학과)는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성적(평균) 평점평균을 소수정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 졸업 및 논문
 -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는 불가하고 제1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 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 다)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사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단, 학위등록 번호는 동일함)
 - 라)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 신청 절차
 - 가) 개인별로 학과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소속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나)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후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EM카드)을 교부받아 유의사항을 철저히 읽고 정확히 작성한다.
 - 다) 작성시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대학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과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후 원칙상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라)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도 원칙상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접수된 최종학위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 파견기간 : 2000. 3 ~ 2001. 2(1년)
-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해당국	해당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TOEFL 성적 550점 이상 취득후자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유콘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0(상)이며, TOEFL 성적 550점 이상 취득후자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콜로라도대학	2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0(상)이며, TOEFL 성적 550점 이상 취득후자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고지아대학	2	일본어로 정규과정 수학기 가능하고, 사범대학원생 2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국	칭화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중국어로 정규과정 수학기 가능하고,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남경대학	2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중국어로 정규과정 수학기 가능하고,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상해사범대학	3	중국어외 정규과정 수학기 가능하고,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계		20	

- 선발방법(공개시험정형을 원칙으로 함)
 - 1) 학과성적(20%) + 해당국어 필기시험성적(20%)
 - 2) 해당국어 회화시험성적(20%) + 일반면접(40%)
- 신청서류
 - 가.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재학생증서 1부
 - 다. 성적증명서 1부 - 학부성적 포함
 - 라. 해당국어 필기시험 1부 - 미국 MSU 지원자에 한함
-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접수) 기간 및 장소 : 99. 10. 11(월) ~ 10. 18(월), 본관 2층 국제교류담당관실
 - 나. 전형일시 및 장소 : 99. 10. 22(금) 13:00 ~, 본관 2층 국제교류담당관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실(☎2260-3875)로 문의 바랍니다.

2학기(제2차)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eginning	Beginnig	Intermediate	Advanced		
오전	07:30	(강의실A)	(강의실B)	(L300)	(L310)	(LAB A)
오후	16:00 17:30	(강의실A)	(강의실B)	(L300)	(L310)	(LAB A) (LAB B)
수강료	강좌당당자는 현재 미정으로 추후 교내 게시판에 부착할 것임을 참조하십시오.					
수강료	60,000원					
기간	199. 10. 25 ~ 99. 12. 8(매주:월,수,금):총 30시간					
접수처	언어연구교육원(동국관 1동 2층:우 외국어교육원)					
접수기간	99년 10월 18일부터(신청순 마감)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집단심리검사안내

종류	내 용
표준화 성격검사	성격은 퍼스날리티(personality)의 번역으로 흔히 성격·인성·개성·자아의 힘·타인의 힘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대인하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성격검사는 이러한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성격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검사받는 피검자의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자기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것이다.(검사일자 : 99.10.20(수) 13:00~14:00)
적성 진단검사	적성이란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학력의 성취도까지 포함한다. 그러기에 개인과 직업을 측정하고 그 개인자를 잘하는데 적용되는 적성검사는 어떤 특정 분야나 직업활동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성격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검사일자 : 99.10.21(목) 18:00 ~ 19:00)
검사장소	A208(원효관)
신청일시	99. 10. 4 ~ 10. 19
신청장소	학생상담실(원효관 2층 A207 맞은편)
문의전화	770-2051

경주캠 학생상담실

회전무대

비교게서 극과 극(?)

비교게서 극과 극(?)
O...게서판 설치에 대한 각 단체의 요구가 온방골 공간부족으로 혼선을 빚는데 이어, 단체간의 게시판 극화현상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원호관에 제모습을 갖춘 모단체의 게시판에 비해 진흥관에 초라한 나무판을 의지한 모단체의 게시판 행색은 '부자와 빈민'을 연상케까지 한다고. 이는 게시판 하나 세우기 힘든 온방골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으니.

이밤의 꿈을 잡고

O...온방골 생활관 축제 기간 중 금지된 사람을 나누는 연인들이 속출해 축제 준비위원들의 고생이 만만치 아니었다는데.

얼아보니 당일 오프하우스 시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 물레미트를 즐기위해 생활관 남학생등 학생이 여자친구를 방으로 불러들었다고.

이와 관련해 전선희 회장은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 남성우월주의가 뿌리내린 세상을 여성중심주의로 바꾸기위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금연구역

O...지난 6일 개장한 만해관장에서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다 박애에 비비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이와 관련해 전선희 회장은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 남성우월주의가 뿌리내린 세상을 여성중심주의로 바꾸기위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웬 춤바람인가(?)

O...가을이라 외로운 사람들이 부족 놀어난 풍류의 교정에, 외로운 춤을 달래는 색다른 비법(?)이 등장했다고. 평소 남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DDR(?)기 앞에서 저마다 코미디의 재리가 할 정도로 배꼽을 아프게 했다.

"실습비 자율제정 계기로 학습환경 개선해야"

향후 5년간 설비목록작성, 1인당 설비단가표시 등의 안건 제정

지난 97년 교육부는 획일적인 '실습·실습설비 기준'을 폐지시키고, 그 대신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수업 등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각 대학에 실험·실습설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본교는 지난 7월부터 경주캠 특별실무팀(팀장=김치영·총무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중·장기별 필수 기자재 설비 목록 작성 △개별별 학생 1인당 설비단가 표시 등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과과정에 입각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질적 수준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반발적이나 교육부가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과정상에서 얼마나 학교의 특수성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수 있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율적인 기준 선정으로 인한 대학내의 과정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내에 기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학생 1인당 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순경에는 국고 보조금 지원과 연계된 공·사립대학의 시설비·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나, 우리에게 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천희경(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사의 초청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춤에는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중 '가족과 여성'이란 주제로 여성수기 공모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전선희 회장은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 남성우월주의가 뿌리내린 세상을 여성중심주의로 바꾸기위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총장 인터뷰 "맡은바 최선을 다할 때 세계"



지난 7일, 부총장실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현재 경주캠퍼스 내에서는 행정구조개편과 본관건립을 비롯해 2000학년도 공역화 모집, 기성회비 통합고지 등 여러 사항들이 관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지난 6월 부총장에 취임한 이후 임기 5개월째 접어든 최규철부총장을 지난 7일에 만나 경주캠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들어 보았다.

-새 천년을 앞두고 학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21세기 교육개발화 시대에 발맞춰 경주캠퍼스가 특색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작성에 관심이 쏠려야 한다. 현재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학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제가 된다.

아울러 경주캠퍼스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역의 소비자 수준에 그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학문, 교양, 나아가 문화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000학년도 모집단위 공역화를 준비중인 본교의 상황.
=96학년도부터 시행해온 학부제의 교과과정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분석을 가졌다. 현 학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본교만이 가지는 강점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편성, 정원조정, 전공명칭 변경, 전공 신설 등을 심도있게 고려 중이다. 본 캠퍼스의 사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과 전국 각 대학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0학년도 입시의 모집단위 공역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내년도 입시요강과 관련하여서는 정원조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최종적인 통보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기성회비 통합에 대한 본교의 입장 및 시행여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교육여건과 발전계획에 따른 총 예산소요내역 집계, 정부 방침 및 대학교육협의회 지침 등이 있다. 즉 총교육비 중에서 학생들이 위한 등록금 의존도를 산출하고 1인당 연간 등록금을 책정한 후 재반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인상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수업료 이외에 학교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준칙'에 대한 특별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성회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성회비는 본래 대학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속경비를 재학생 학부모의 도움을 통해 충당할 목적으로 마련했으므로 본질적으로 수업료와 같은 성격을 띤다.

아울러 21세기 학사개혁 추진을 위한 학정등록제 확대 시행, 대학·계열·학과별 등록금 차등화가 고려중인 터라 등록금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기성회비의 통합고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촌살리기의 일환으로 본교에서 지난 9월 29일에 시행된 '버 일꾼 세우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교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교는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벼세우기 행사가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부총장으로서 일기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부총장으로서 일기내에 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첫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공과자 위주의 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교수는 연구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강의실 및 교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도서관의 장서를 확대한다든지 컴퓨터 실험실 설비를 확충하여 실험실습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정무원 입구에 건축예정인 본관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본관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본관이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바라며 다가오는 2000학년도에 보다 나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학내 여러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픈 것은.
=공과자 위주의 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의 전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여러 구성원들은 오로지 자신의 편익만을 꾀하지 않고 본연의 직분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할 때 본교 역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희정 기자 biwon@mail.dongguk.ac.kr

상경대·취업지원팀, 모의면접고사 실시

응시자 4명, 방청객 50명 등 학생 참여 부족

상경대 학생회(회장=김동규·경영4)와 취업지원팀(팀장=김용기)은 지난 5일 원호관 소강당에서 3·4학년년을 대상으로 '모의면접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면접고사는 실제 취업면접 시험 재현을 통해 학생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여명의 방청객과 4명의 응시자가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면접관으로는 △공공도호호원-민백기 상무이사 △한국취업문제연구소-김일민 소장 △국채경제학과-김희오 교수 △관광경영학과-박종희



하나됨 ... 지난달 30일 부터 8일까지 9일간 치러진 '99 백상학대방'이 막을 내렸다. 축구와 농구, 줄다리기 등 총 9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백상제에서는 특히 인강열차경기와 800m릴레이에서 화과·학부학생 모두가 하나됨을 보여준다는 자기가 마련됐다. 체전 결과는 △중합우승=사·체 △중합준우승=관·경 △중합공동 3위=조정, 행정 △입장상=관·경 △승원상=조정 △트랙상=관·아 △남·여 육구=관·경, 사·북 △농구=사·체 △탈이구=행정 △출타대기=조정 △800m릴레이=행정 △인강열차경기=국문 △단체줄넘기=행정 △남·여 마라톤=사·체(조준진, 윤민정) 등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총여, '자유선언 페미니즘 문화제' 개최

총여학생회(회장=전선희·국문4)이 총여(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오후 4시부터 백상당 앞에서 '자유선언 페미니즘 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13일은 △개막제=중앙노래패 올샘 공연 △페미니즘 영화상영=안토니아스라린 △성폭력 자유 거러진 등이 치러지며, 14일은 △트러트연극=동국연극회 △자유선언 거러진 △여성 영화제=내 책상위의 천사 등이다.

직원노조, 등반대회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진형)은 오는 12일 4시 소강당II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이진형 노조위원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신제와 함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 법회 개최

정직원(위원장=정성분·불교학)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정각인 법당에서 '교직원 법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이진형 노조위원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산신제와 함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크업 강좌 실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영·법4)는 오는 13일 오후 5시 30분 소강당II에서 정동숙위원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좌를 실시한다.

여성주의 글쓰기상 공모

지속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적인 글쓰기 상을 공모합니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여성적 방법과 여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도 대안적인 글쓰기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온방골에 여성문화 정착을 위한 문제제기로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Table with 4 columns: 주제, 분량, 상금, 접수. Details about the women's writing competition prizes and deadlines.

경주캠 총여학생회

2000학년도 학사 장교 모집

- 1. 모집 인원 : 4학년 000명
2. 지원 자격 : 4학년 대학
가. 4학년 대학 졸업자, 99년 2월 졸업예정자
나. 73. 10. 1 ~ 80. 9. 30 사이에 출생한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9. 10. 4 ~ 10. 31 (학군단 행정실)
나. 구비서류

Table with 2 columns: 1차 구비서류 (지원서제출시), 2차 구비서류 (신체검사시). Lists required documents for the 2000 academic year faculty recruitment.

- 4. 선발 절차
1차 : 서류전형(수능, 학력(20%) 및 대학 전학년 성적(20%), 면접(30%), 체력검정(30%)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합·불제).
5. 합격자 발표 : 2000. 3. 27
* 문의처 : 동국대(경주)학군단 TEL:770-2536, 2537

제112 학군단 경주분단

해군·해병대 장교 모집

- 1. 지원자격
가. 연령 : 임관중 기준 만 20세~27세(72.6.30~76.7.1 출생)
* 단, 총위 일관 대상자 / 국가고시 합격자는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나. 학력
* 4년제 대학졸업(00.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단, 해사 교관 요원은 모집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소지자
* 현역 하사관/병조 대위이상 졸업자는 일반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가능하며, 소속부대장(육·공군은 해당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2. 모집 일정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일정, 장 소, 시험.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schedule and locations for the Navy and Marine Corps.

- 3. 구비서류
접수처 : 학과시험시
가. 지원서(해군사서) 1부
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부
나.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라. 석(박)사/기술(기)사자격증 (3소지자에 한함)
마. TOEIC성적표(80%이상 취득자) 1부
* 불러스런(결정) 및 수험표 지참
미. 컬러 반명함판 사진(3x4cm) 3매
* 지원서 접수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요함.
4. 전형 및 배정

경주캠 예비군 연대장

자격증 대비반 모집

정보관리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증 대비반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개설강좌, 강의기간, 강의시간, 수강료비고. Details about the certificate preparation classes.

특 강

만다라 제작 워크샵 II - 자기를 찾아서 -
1. 일 시 : 99년 11월 3일(수) 오후 1:00 ~ 4:00
2. 장 소 : 진흥관 1층 피복실수실
3. 강 사 : 김진숙(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사)
4. 워크샵참여비 : 무료(도화지 제공)
5. 준비물 : 색상이 다양한 그림도구(크레용, 파스텔 등)
6. 신청기간 : 99. 11. 1(월)까지
7. 신청장소 : 여학생실(학생회관 3층, ☎ 0561/ 770-2056)
* 만다라는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원상을 의미합니다.

경주캠 여학생실

경주캠 정보관리실

정보관리실에서는 재학생들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증 대비반을 모집합니다.

동약로

국보법·양심수 없는 그날까지...

쉽터



“차한잔 마시면서 잠시 쉬어가세요” 현재 서울캠 총학생회는 다량관 교직원 식당이 있던 자리에 테이블과 의자, 읽을 거리를 준비해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휴식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쉽터’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일, 민가협 3백회 목요집회 ... 인권개혁촉구문 발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악법과 이 땅에 양심수 없는 그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보라색 머리수건을 두른 민주화가 촉진동맹총연의회(상임의장=임기란, 이하 민가협) 어머니들의 집회가 지난 7일 3백회를 맞이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어머니들의 목요집회가 지난 7일 3백회를 맞이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발언을 하고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분단된 조 생·노동자들이 바른 양심으로 행동에 옮긴 최 췌”이라고 항변한 뒤 “정권유지를

위해 천하의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골대를 씌워 감옥에 넣고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감옥에 갇혀있는 한 양심수의 어머니는 “나라를 경제파탄으로 몰고 온 김영삼과 김현철은 석방하고, 김영삼한테 “그렇게 정치하려거든 하지 말라”고 말한 우리아들은 아직도 0.7평짜리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했다.

민혁당사건 대책위 결성

지난 6일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분쇄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전국연합,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등 민족민주세력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달 9일,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민혁당 사건에 대해 △김영환의 자백 외에 관련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의 구체적인 불증인 강령, 규약 등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발표한 점 △수사과정에서 불법·강제수사 등이 행해진 점을 들어 “국가안보를 불모로 자행된 공안탄압 기도”라고 규정하고, '민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국보법철폐를 위한 단식

지난달 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사찰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한총련 구국단식 농성단도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명동 조총연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전대기련 간담회

“산별노조 건설만이 최선”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약법 철폐 추진

지난 9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병호 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주40시간 노동제 관철 △노동약법과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보장제도 개혁 △재벌 개혁 및 정치개혁과 진보정당 창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건설 등 99년도 하반기 5대 투쟁방향과 목표를 결의문을 통해 채택했다.

=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50%의 인원 감축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30%의 요금 인상을 초래했다. 정부도 매각 이후에는 22%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력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닌 기업은 재벌뿐인데 이는 재벌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외국자본이 20%인 상태에서 해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불을 보듯 훤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한미, 한일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투쟁도 펼쳐 나갈 것이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미래를 위해 ... 지난 8일 전국교대 대표자 협의회 소속 3천여명의 학생이 서울 명동성당과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초등학교 교사결원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4개월의 보수교육을 정식으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날 서울교대 학생회장은 “나리의 설립시대때문에 4개월의 보수교육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보수교육 반대를 위해 시민들에게 서명 받는 모습이다.

2000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모집지역 : 4년제 대학졸업자(00.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4. 선발절차
5. 합격자 발표 : 2000. 3. 27
6. 특 전
7. 문의처 : 학군단 행정실 2260-8537

노경원 학우돕기 모금 운동
지난 10월 1일 오후 3시경 백상체전 예선전 '극제관계(창도):정보산업(한바람)' 경기 중 정보산업(한바람)골키퍼와의 충돌로 인하여 '노경원(창도 소속·법정학부1)' 학우가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왼쪽 경골 골절'의 증상을 입고 10월 4일 수술 후 현재 동국대학교 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가득 모금 : 기간-10월 11일(월) ~ 10월 15일(금)
통장 입금모금 : 제일은행 755-20-236254(예금주-장병우)

새 천년을 맞이하는 동국의 자랑! '99 백상예술제전에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또다른 세상으로
더이상 상상·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11일 '99 백상예술제전 여는 마당
12일 '배제라! 국가보안법'
13일 작은 소리 큰 울림
14일 백상단추마라톤

서울캠 제112학생군사교육단

경주캠 법정대 학생회

서울캠 민족동국 31대 자주적총학생회

핵방사능 누출 사고 논란

핵사고, 생태위기의 경고...친 환경적 에너지 마련 시급

지금 우리는 세기말을 보내면서 생태계의 위기와 함께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핵 문제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험적인 현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에 일본의 이바라현에 위치한 JCO 도카이 우라늄 공장에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사고는 49명의 피폭자를 낳는 핵 재앙이었다. 그 동안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일본의 위험한 플루토늄 계획에 대해 △플루토늄 해상수송의 위험성 △핵무기의 의도 △기존경수로에 플루토늄 MOX를 사용하는데 대한 안전성의 문제 등을 경고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의 핵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에 여론화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수송을 강행하였고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직접 영국과 프랑스의 핵연료회사에 플루토늄을 제공해 주어 고압하는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 후 일어난 방사능 누출사고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경악케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16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해 놓고 있으며, 6개의 신규 재처리공장건설과 함께 향후 2010년까지 약50톤의 플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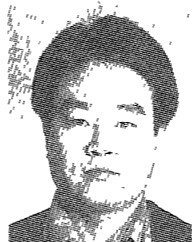
토늄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100년 이상의 해상수송이 예상된다. 이는 핵무기 1천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서 플루토늄 왕국이 될을 의미하며, 지금도 마음만 먹는다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세계의 핵산업계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트리마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핵발전소들을 언제 폐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친 환경적인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제 핵 발전은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의 증가, 안전성의 문제, 기술적 결함의 증가와 대중의 높은 환경의식, 핵 폐기물 처리 등의 만성적인 문제와 비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핵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는 78년 트리마일 사고 이후 발주된 것은 1기도 없다. 또한 전력의 50%를 핵 발전에 의존하던 스웨덴은 이미 1980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 201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리고 친 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는 현명함을 선택했다. 또한 유럽은 EU차원에서 2010

년까지 50만개의 태양에너지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의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도 경제성, 안전성에 위함이 있는 대규모의 플루토늄 위주의 핵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는가? 그들이 표방하는 '에너지 자립화'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핵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핵 확산을 부추기는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핵 열강국의 핵 감축 노력과 함께 관련국들이 일본의 위험한 대규모 플루토늄계획을 철회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일본의 핵 사고에서 보았듯이 핵 문제에 있어 안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대형 핵 사고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핵 연료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수준이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예방 안전시스템과 관리에도 인체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4일 발생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고는 기술발전과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심각한 사고였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 후 4시간 이내에 사고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원전사고·고장정보공



김달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변인

개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이번 월성 핵발전소는 지난 84·88·94·99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5차례의 중수 유출사고가 난 곳이다. 이러한 잦은 누출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핵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월성 핵발전소는 CANDU형 원자로로 중수중성자 캐논을 사용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전면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월성 1·2·3호기를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을 백지화하여 핵 재앙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21세기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현명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일한 종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나 21세기 인류의 평화 공동체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회에 바란다

학생회에 바란다

'학생자치권'이 단과대 학술제·체전 기간에 학생회 간부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간부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하연 무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망치질 하느라 여념없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요즘 서울캠퍼스에서는 각 단과대마다 학술제와 체전을 치르느라 동악전체가 분주하다. 각 단과대의 학술제·체전 기간은 대개 비슷함에도, 빠르기는 지난날 28일부터 시작했으며 경시대, 생시대 등 모두 7개 단과대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오늘(11일)부터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99백상예술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단과대의 학술제·체전은 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학생 스스로 참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학생회 사업을 일반 학생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단과대 학술제·체전의 중심내용이 학내외에서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인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발전 5개년 계획·PK21 철폐' 등인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단과대 학술제·체전은 그야말로 '학생자치권'이 최대한 실현되는 행사라 하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으로서의 '기본 예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는 교직원도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학생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곧 학생회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불상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도서관 앞에서의 선전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학생회의 사업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장소는 불상 앞이나 도서관으로 본교의 경우 그 곳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단과대 학술제·체전 준비를 수업시간대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학생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위치기만 할 것인가,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학생회는 그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적 고민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언론정신

보광그룹의 대주주이자 중앙일보 사장이 홍석현씨의 구속 사건은 단순한 기업가이자 언론사주의 구속을 넘어서서 현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직면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력의 역할이 그들을 대변하고 통제하는데 있다면 언론은 이러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켜내는데 그 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국민 역시 이러한 점에서 언론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한나라당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홍사장에 "사정법 원내세요"라고 말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신뢰를 배신감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고 언론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물론, 예로부터 언론과 정치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이고 보면 중앙일보로서는 자신들을 보호하고자하려는 것이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자 정신마저도 유린된 이들의 모습은 분노만 아니라 허탈함마저 느끼게 했고 이러한 모습 하나만 봐도 지금껏 우리의 언론이 어떻게 존재해왔는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 언론의 적이 정부 권력이었다면 지금에 있어서 언론의 적은 언론사주라 할 수 있다.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부권력으로부터의 탄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언론사주가 언론사주 개인의 상업적, 정치적 욕망 때문에 훼손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신문의 힘은 발행부수, 부수는 재정'이라는 통칙이 언론에게는 필연적으로 뒤따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의 방안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 기자들 스스로의 반성과 참된 언론정신을 지키고자하는 노력만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중앙일보 오동명 기자의 내부 비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유신시대 때 간혹 보였던 기자들의 비판정신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이다.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50년 은폐시킨 불평등 한-미관계" 한미행정협정 개정·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1950년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에 의해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마을주민 4백여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낳은 양민 학살이 얼마 전 AP 통신의 보도로 알려지자 여러 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을주민들을 대피시켜 주겠다고 철도 위로 모아놓고 무차별로 폭격을 가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주민단체는 전쟁 직후부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수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과 시효를 들어 묵살해왔으며, 지난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미국 정부에 요구한 진상규명도 "남한의 노근리에 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통보로 대신했다. 그러나 얼마 전 양민학살 사건 미 공군자료와 당시 참전한 미군 가해자의 증언으로 양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해 왔던 노근리 양민학살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보도 직후에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미 클린턴 정부는 세계의 언론이 이를 문제로 삼자 지난 30일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도 50년 동안 외면해오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 8월 59개의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여 '미군 양민학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법집정관들은 부(상임대표=문대골, 이하 주민분)의 문대골 목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없이 진정한 한-미 우호는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기자 회견문을 통해 "한-미 두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마산, 창녕 등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양민학살 사건 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분의 정유진 사무국장은 "노근리 사건은 미군의 수많은 양민학살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양민학살의 기록을 모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려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통일당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은



'5027-98' 전쟁도발계획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주한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평등과 미군문제해결을 위한 발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은폐돼 왔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티모르 탄압과 맞물려 시시하는 바가

Advertisement for SK Energy. Text: '당신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실때 언제나 SK주식회사가 있습니다'. Includes SK logo and website information.

연재소설 <5>

게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게론을 업호하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아슬아슬 멀어진다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자리가 비어진다고 해도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의 소원과 우리의 성장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필통의 공개를 제외하면 그는 누구나 함부로 쥐어박아도 좋을 멸속한 장승토막에 불과했다. 검은 머리카락들 속에 섞이지 못하는 노랑머리, 까만 눈깔들 속에 부스럼 딱지처럼 박혀있는 파란 눈, 그것이 게론이었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무관한 형상이었지만 우리들은 엄청난 그 이물감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혹했다. 자칫하면 양말보 귀신을 우리에게 달라붙게 할 전염병 보균자라고 여겼다.

지 않았다. 더욱이 연구실이란 공간은 0.75평의 독감방처럼 보호 장치가 견고했다.

“같이 좀 만나자.”
 닥대는 출정을 앞둔 장교가 병사들 앞에서 훈시하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비장하기까지 했다.

“만나서? 난 영어도 못하는데. 그가 협상 실무자라면 우리측 협상 실무자가 만나야지. 나같은 문화 교수가 감당해야할 역할이 있었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습관이 또 발동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그러기보다 라고 여기는 여유 아닌 방관자 습성 때문인가. 국가가 부도나도 그럴만한 필연성이 이미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냉소하면 역할이 끝날 것이다.

“확인은 다 됐다. 안기부에 있는 용수가 신상 정보를 확인해 줬다. 잠바데기 걸치고 가방 메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머리를 짧게 깎은 그 친구가 바로 게론이야. 미스터 게론이야. 재숙이란 우리 동창 계집애도 함께 만나기로 연락했다. 외무부에 근무한다. 동시통역사야. 영역은 도사다. 통역을 맡기로 했어.”



게론 알지. 어릴 때 실컷 골려준 그 아이 노무 말이다. 이번에 내한한 IMF 협상팀 실무자 중 한사람이야.

일년에 한두 번 실없는 목소리나 나누는 사인 인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바라보는 쪽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가 울부짖듯 다급한 목소리로 귀청을 때렸다.

“뉴스 봤지?”
 “무슨 뉴스?”
 “무슨 뉴스는 무슨 뉴스였어. 온나라가 부도난다고 난리잖아.”
 “그건 알지.

한반도호가 침몰한다고들 남들이 그러데.”
 “헌소리할 겨를 없다. 애국하는데 너도 좀 나서야겠다. 게론 알지. 어릴 때 실컷 골려준 그 아이노무 말이다. 이번에 내한한 IMF 협상팀 실무자 중 한사람이야.”

“잘못 본거 아냐? 나같은 백면서생이 애국하는 길이 뭐데?”
 고시를 봐서 정부 경제 부서를 떠돌다가 지금은 푸른 기와집으로 출근하며 푸른 기와집 비서관이라고 양각으로 파진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지만 닥대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간 관심 밖이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고,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불쌍한 단군 할아버지, 곱씹하면 출연료도 안주면서 출연 요청을 강요받는 심심 고운 할아버지. 그런 난리지경이라지만 캠퍼스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치외법권 혹은 소도처럼 최전방에서 부는 강풍이 크게 미치

“위에서 시켰냐? 뭔가 유리하게 불꼬를 터보라고?”
 닥대의 제안을 직선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비틀거림으로 받는 자신이 약간 우습고 싫기도 했다. 교수 생활 10년에 대비 꼬는 능력만 발달했는가 싶어 입맛이 썼다.

“시키고말고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총력전이야. 3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이다. 독은 터졌고 독을 막는 협상이 잘못되면 60년대로 떨어지는거지 뭐. 개가 대포는 아니지만 재량권을 가진 실무자야.”

“내가 할 일?”
 “네가 만나지면 만남을 회피하지는 않을거다. 바로 너네 옆집에 살지 않았나. 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희 부모님이 모두 수습하지 않았나.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았다면 네가 만나지는데 거절하지 못할 거다. 알았지? 대한민국호 침몰 직전 SOS!”

우리의 세기말 풍경

세기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여러 모임으로 무척이나 부산스러워 보인다. 세계의 각종 신문, 방송 매체를 접하거나 인터넷의 밀레니엄 관련 웹사이트에 들어서면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밀레니엄 기념파티, 밀레니엄 일출 크루즈 여행 등의 밀레니엄 특수를 노린 상업적인 내용들에 못지 않게 지난 천년 동안의 인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거시적으로 새로운 천년에서 인류의 미래를 조명해보는 기획 기사도 많이 눈에 띈다. 서구의 정치계는 이미 21세기형 지도자들이 포진하여 있고,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등의 분야에도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건설적인 토론과 발전 방향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요즈음 우리의 세기말 풍경은 어떠한가. 한 때, 'Y2K 문제'로 한 공기가 내일이라도 추락할 듯 연일 이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가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한바탕 소동도 이제

는 잠잠하다. 남북 문제는 미국과 한 민간 기업의 '현신적인' 노력으로 안정된 듯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면에서는 그러한 '현신적인 노력'이 없어 서인지는 몰라도 호떡집에 불난 양 총체적으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감사에서 대안 없이 목청만 높이는 우리의 선량들,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사자후를 풀어내는 '전과자' 정치인들, 21세기형 지도자 대신에 21세기형 짧은 피 한 방울 고집하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 한 언론기관과 정부간의 거짓말 행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천년의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구시대적 유물의 우울한 단편들이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중심의 양력법에 그리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법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인간이 만든 연력이란 자의

달하나 천강에

적이며 부질없는 것. 현 서양력의 기초가 되었던 예수의 탄생 년도도 서기전 1년이 아니라 서기전 20년에서 4년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 또한 2000년이라고 해서 장미빛의 달콤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의미있게 보자는 것은, 새해의 첫날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주는 계기가 되듯이, 20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의 해를 맞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대승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갖자는 것이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우리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안목과 소의 느긋하고 겸실한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호시우행'의 정신으로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며 앞날을 계획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더 윤곽하게 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박윤희
문과대
영문학과 교수

박노해 시인, 변절이나 변화냐

“방법은 바뀌었지만,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게 진보”

“라카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내해 주느라고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무릎을 꿇은 채 같이 춤을 추주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유럽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곳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낮지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오랜 수배생활과 7년이 넘는 감옥생활 끝에 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세상에 나온 박노해 시인.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지쳐있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읽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간지는 물론이요, 스포츠 신문에다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월간지, 주간지 및 각종 책, 심지어는 세계의 패션동향을 알기 위해 일본의 논노 잡지까지 보았다고 한다. 이런 끊임없는 '자기 채신' 덕에 그는 요즘 '방법을 알았다'는 듯이 새로운 혁명을 하고 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며 일부에서는 '변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노동자'라는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의 조직도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보수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보"라며 "탄압받는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벌을 보호하고, 통일비용이 많이 드니까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변절"이라는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 운동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이기는 운동이요, 둘째는 돈이 되는

운동이며, 셋째는 즐거운 운동이다.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며 그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다. 이기는 운동이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참여연대의 재벌해체 운동이나 동강살리기 운동이 바로 승리의 운동이었다고 했다. 돈이 되는 운동은 회비가 많이 모이는 운동, 즉 국민을 감동시켜 회원 확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운동이다. 끝으로 정그리는 운동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 운동가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것은 얼마전 출간한 '오늘은 다르게'라는 에세이집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진보 속의 보수, 생활 속의 보수에 경고를 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분명한 입장과 생태마인드를 영혼이 진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를 얘기하며 '신세대'를 빼놓는다는 것 또한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신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보는 낡은 진보라며, 개인주의적이고 패락주의적인 부정적 측면은 변화시키고 신세대의 참신한 감각을 386세대의 진지함과 접목시키는 것이 이미 그에게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았다. 생활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에 포섭되어버린 신세대들에게 TTL 못지 않은 멋진 운동으로, 월간 노동해방문화가 7-80년대를 선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무엇으로' 시대를 선도해야 함을, 그는 '내가 흘러 너에게 닿아야 한다'고 표현한다.

그의 삶 속에서 일관되어 오고 있는 '희망'. 그는 그 희망을 정직하게 절망하기로 정의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몸짓을 하고 있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생활광고 - 환경을 살리자 2



한쪽면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들.

잠깐.

버리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합시다.

하나의 종이가 만들어 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매체비평

-영화편-

식스 센스

“영화의 끝 무렵 드러나는 반전은
수동적이었던 관객을 또 다른
게임에 뛰어들게 한다”



영화 '식스센스'는 영화대체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

“집속 ‘중경삼림’ ‘하나비’ ‘식스 센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기 다른 장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이 영화들은 가까운 사이에서의 소통의 어려움 내

관객의 감각적인 쾌락과 정서적인 만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게다가 영화가 끝나갈 무렵 드러나는 반전의 상황은 수동적이었던 관객을 또 다른 게임에 뛰어들게 한다.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던 관객

은 영화의 막판에 가서는 ‘아!’ 하는 탄성과 함께 자세를 바로 하고 영화에 다시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이 영화의 장점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것은 주제의 보편성과 형식의 참신함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감탄에서 비롯되었다.

‘식스 센스’는 주인공이 겪는 공포의 순간에 관객을 함께 밀어 넣음으로써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다. 주인공 톨의 대사처럼 그야말로 “혼자가 되면 왜 두려운지”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객은 이 영화와 소통하면서 죽음이라는 경계도 지우게 된다. 영화의 이야기와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 삶과 죽음은 그 경계가 확실치 않게 나뉘지 않는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한 소녀의 스위트 홈에 존재하는 폭력의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증산층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를 조용히 제시한다. 아이들의 학예회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각자 자신의 아이만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본다’는 유령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정말 섬뜩하다.

다터 말콕이 톨의 마음을 열기 위해 독심술 게임을 자청했던 장면에서 톨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가 다시 멀어질 때 느꼈던 안타까움은 더 강렬한 공포를 주었던 장면보다 더욱 오랜 인상으로 남게 된다. 이는 이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공포영화가 줄 수 있는 감각적 쾌락뿐 아니라 관객의 심리를 자극해서 정서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독심술 게임에서 말콕이 톨의 마음을 맞추고 톨이 한 발짝씩 다가올 때 느꼈던 소통의 희망은 톨이 비밀을 털어놓지 못

하고 혼자서 계속 귀신들의 출현에 시달리고 있을 때, 관객으로 하여금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관객은 ‘저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말아야. 왜 하필 저런 어린이에게...’ 하는 안타까움으로 결국 눈물을 쏟아낸다. 그리고 이즈음 영화는 문제해결의 고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다시 관객을 성장의 순간으로 이끈다. 말콕이 과거의 환자에게 주었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기억에서 해답의 열쇠를 찾게 되는 장면은 뛰어난 후회와 깨달음의 순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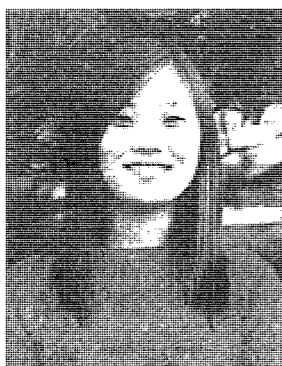
‘식스센스’는 감각-공포영화의 쾌감, 정서-휴머니티, 이성-치밀한 이야기 구조의 삼박자가 뛰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화이다.

임제원
연극영화과 석사과정 3학기

칼수습기

동약을 뒤흔드는 열정으로 정기자여 질주하라!

작은새의 힘찬 날개짓은 동약인과 함께 영원하리라.



김지혜(인문대 국문학부)

대학... 꿈과 낭만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작은새의 모습을 한 나는 갑작스런 자유의 바다로 날아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내게 준 ‘자유’는 또다른 ‘방황’을 낳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처음 맛보았던 무절제한 생활이 날 점점 혼란의 늪으로 내몰고 있음을 느꼈다. 과연 ‘대학’이란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난 무엇을 배워야 하

고 또, 무엇을 위해 내 젊음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일까. 난 이렇게 대학생활에 대한 참의미를 찾지 못한채 나의 새로운 선택이 ‘탈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집없이 신문사에 ‘발’을 내딛던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내 삶의 또다른 날개짓은 시작되었다. 숨쉬듯 없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항상 긴장감에 휩싸여 출근처를 찾았고, 그 곳에서 난 ‘학생’이 아닌 ‘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만 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수습기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자리를 찾게 되었다. 누군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고 했건만, 취재를 하며 만나는 이들의 모습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기자로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소중함을 이제 수습이 아닌 ‘정기자’의 이름으로 가슴깊이 느껴보려 한다. ‘대학기자’의 깨어있는 두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약인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동지를 들은 작은새의 푸른 하늘을 향한 힘찬 날개짓은 계속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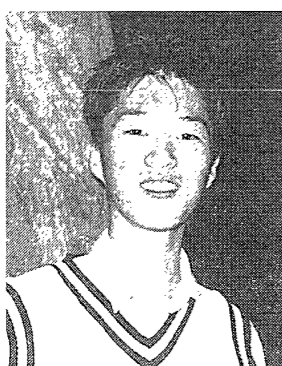


정미혜(인문대 국문학부)

그러나 힘들다는 말이 익숙한 나머지 우스갯소리가 되어 나올 때 나는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 고되다는 말을 깊이 통감하며 돌아본 내가 걸은 길과 그리고 신문사. 그곳은 마치 ‘종전’을 위한 노력이 통일로 이어져 단 하나의 목적이 기적을 만들어 내는 장소였고 그 증거는 매주 일상처럼 찾아드는 신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내가 걸

어운 길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시작을 발견할 수 없었다. 되는데로 걸은 무성함, 무성함, 다룬이의 좁지만 잘 다져진 오솔길을 바라보며 난 그저 웃음섞인 한숨을 지었다. Save가 통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이미 ‘참’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더이상 지칠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좌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신문사가 내게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 내게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독자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태만은 금물! 나는 내 가사에 책임져야하며 그것은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다시 잡목이 무성한 수풀속으로 걸어 들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뜨리고 온 나의 부분들을 맞추어가면 곧 잠잠하게 뻗은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을 안다. 또한 이제는 때려버린 수습이라는 두 글자에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중압감과 책임감이 주가 바뀔 때마다 더해갈 것임을 알고있다. 그리고 나의 길도 한뼘쯤은 더 늘어갈 것이다. 물론 어느 ‘선’에서는 다시 나를 잃을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 다시 내게 새 내밀어줄 나를 믿는다. 김지혜 기자 kal@mail.dongguk.ac.kr

신문사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리라.



최창호(자연대 수교)

“대개가 한 자락 강물로 내 마음을 적시는 동안 끝없이 우는 밤으로 날을 지새우던 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울지 않으려고 괴로워하는 별을 바라 보았습니다. 오래오래 별을 바라 본 것은 반짝이는 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별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의 아득한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지상의 여기자에게 크고 작은 길들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가 내포한 의미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서술하는 것 같아 난 이 시에 대해 몇 번이고 읊어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수습이라는 말의 테두리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내려졌던 기자라는 직책 속에 많은 방황과 고통이 주어졌다. 신문사 생활이 나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이질적

인 요소들의 집합체에서 몇번이나 나 자신을 비판할 때도 있었다. 지금도 능력의 부족함과 딱딱한 일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 계속 채찍질 하고 있다. 그 채찍질이 나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주었지만 나에게 배와 살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란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6개월을 생활하고도 앞으로의 길을 알 수 없는 신문사의 길.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신문사 생활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후배 내가 신문사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직 2년 4개월이나 남아 있는 그 길을 다 가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호기심과 그 이후의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나는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신문사에서 배워 온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들 길이 얼마나 길지 혹은 짧을지는 모르지만 난 다 집한다. 대학신문 기자로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낸 길을 걷는 독자들이 좌절이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온실의 화초보다 길가의 코스모스처럼 삼만독자앞에 강인한 정기자로...



이소라(상경대 경영학부)

만들어 낸다. 이렇듯 나란 존재를 일깨워 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 바로 이곳 신문사이다. 어렸을 적엔 내 의지보다 부모님의 보살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것을 판단하고 생활을 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 나 자신은 황량한 벌판에 혼자 버려진 양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낯설다면 낯설다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나의 자리를 찾기를

해 선택한 ‘신문사’, 처음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종이 위에도 내 열정과 노력이 담긴 글을 메울 수 있을거란 자신감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힘이 너무나 컸고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해야하는 부담감, 나를 지루한 억누르는 취재회의, 한 장의 기사·하나의 단어를 쓰기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일, 내 노력의 한계까지 다달았나 하는 좌절감과 함께 나의 친구, 과활동들 저버리고 신문사에서만 대학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다. “이소라 수습기자”, 6개월간 나에게 주어진 명칭을 이용해서 ‘나’ 라는 존재를 감추며 지냈고, 내 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에도 나 자신의 글로써가 아닌 신문사 수습기자라는 명칭을 이용해 남들에게 보여지곤 했다. 이제 나는 테두리속 수습기자의 생활을 끝내고 길가의 코스모스처럼 강인하고 없어서 안될 그런 정기자의 길을 걷게 된다. 더 큰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나만의 노력이 담긴 글이 3만 독자의 머리속으로 읽혀질때의 그 뿌듯함을 길이 간직하고픈 정기자로 태어나리라.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메아리

안전불감증

▲86년 4월 26일 구소련방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의 제 4호 원자로의 폭발로 전세계는 공포에 떨었다. 당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35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자만 수백만명에 이르며 그에따른 각종 질병과 수많은 기형아들이 탄생했다. 또한 원전에서 32km이내에 있는 토양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은 자멸해 버렸다.

소련정부는 사고 이후 한달이 훨씬 지나서야 사고 경위를 실토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교차 다니는 이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뿐이었다. ▲지난달 30일 일본 주거지역인 동해촌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는 사고 직후 일반인이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 양인 0.8밀리 시버트를 기록했으며, 한때는 통상치의 1만 6000배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방사선이 누출됐다고 한다. 이 누출사

고로 50여명의 피폭자가 발생하는 진동들 겪어야만 했다. 이로인해 기술과 안전점검에서 철두철미하기로 이름난 일본의 자존심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광 원자력 1호가 오후 12번째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 월성 원전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증수가 넘

쳐 22명의 직원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국내 원전의 고장사건이 잇달아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우리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갖가지 채소를 재배하는 현장 등의 홍보가 종종 목격된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도 핵 재원은 어느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대량의 원자력 발전의 가동은 머

지않아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기계 자체 내지 공장상의 결함이 아닌 인체에 의한 인위적 과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문스럽다. 어쩌면 이 많은 대참사에 우리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 정희정 대학부장 bhwon@mail.dongguk.ac.kr

소나기

불교종합병원



△우선 돈부터 모아봅시다.
 △돼지 저금통 털어야지!
 △병원 건립도 좋지만 몸 안아픈게 더 좋지요!
 △일산시민은 좋겠다.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생겨서...
 △늦게 짓는 만큼 최신시설로 남부럽지 않게 하자구요.
 △통일되면, 북한주민도 이용하겠네.
 △꼭 '불교'라는 명칭이 붙어야 하나!
 △아~ 얼마나 기다렸던가. 2000만 불자의 염원이 이뤄지는군.
 △지으면 우리는 일산가란 말인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병원인가?
 △우리 졸업하기 전에 임상실습할 수 있냐?
 △재발 빨리 지어라!
 △스님들이 그 곳에 가면 평생공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 모았으면...
 △교인들을 위한 진정한 병원이길!!
 △동대인 종합병원을 짓는 것이 어떨지.
 △부실공사는 정말 안 됨.
 △그곳의 의사는 전부 스님들인가?
 △일산보다 경주가 어떨런지. 땅값도 싼데.
 △첫번째 치료대상은 바로 동국대!
 △누를 위한건데?
 △우리 등록금으로 짓지 말고 재단이사님 부탁해요!
 △이거 지을 돈으로 학내 학생복지공간이나 늘려주세요!
 △동대생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지?
 △급하게 하지 마시다. 이따가 체하니까!
 △차라니 기공식, 올랜 착공식, 내년에 1층 공사 완료식?
 △재단을 위한 재단에 의한 재단의 병원이 아니었으면!
 △잘 지어봅시다!
 △학교발전과 병원... 글세!
 △다른 학교는 병원 때문에 망했다는데!
 △돈은 없고 짓고는 싶고 참 안타깝군요!
 △우리 등록금이 얼마나 그쪽으로 빠졌는지가 궁금하다!

△동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독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소나기'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말들로 품위를 잃고 있다. '동약광장'의 내용은 친구나 이성간의 생일축하, 연애담, 싸움이나 학과홍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상의 이야기라도 누구나 읽어서 한번 더 재미해볼 만한 재치와 기지가 담긴 귀한 체험이나 진한 경험담, 또는 귀에 솔깃한 광고이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낙서는 일상 거리의 낙서와는 다른 대학만이 갖고 있는 멋이 있어야 한다. '소나기'의 경우 '△' 표시가 너무 많아 눈을 어지럽게 하고, 내용 또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질서 없이 나열하여 난잡한 느낌이 든다. 지난 주 '동토토로 파병'에 대한 여아의 이야기를 대화체로 엮거나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을 찬반으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구성했으면 싶다.

알림

제1280호 독자투고중 '환경과 사회' 관련글은 경주캠 학생의 글임을 밝힙니다.

TEL: 22603491 · 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제육볶음(1500) 고구마별미밥(1300)
화	달걀치(1500) 카레라이스(1300)
수	비빔밥(1300) 개살간종기(1500)
목	오징어까스(1300) 콩나물볶음밥(1300)
금	달도리탕(1500) 오징어무국(13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백절채(1500) 김치떡전골(3300) 튀김달걀(1300) 떡볶이불고기(3500)
화	제육김치달걀(1500) 일탕(3300) 하이라이스(1300) 떡볶이(3300)
수	후라이드치킨(1500) 소고기전골(3000) 참치볶음밥(1300) 계장떡볶이(3500)
목	오징어어채볶음(1500) 견세우이육국(3000) 복어해장국(1300) 비후까스(3800)
금	돈까스(1300) 우육탕(4200) 김치수제비(1300) 참치회덮밥(3300)

(단위: 원)

모니터링

제 1280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학언론, 주간지와는 다른 품격을 지녀야...
대학만이 가진 멋·체계적이고 알찬 편집 필요

그리고 '신라문화제'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주캠이 참여하는 종목과 일반 행사일정의 시간, 장소 등을 도표로 안내해 주었어야 했다. 신라문화제의 주인인 경주캠 학생들이 문화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효과에서 미흡하였다.

대학신문은 학생기자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신문을 편집해야 하는 까닭에 시간에 쫓겨 학업과 신문편집 모두에 고충이 많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는 독자는 아무도 그런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문으로만 생각한다.

그러기에 좀 더 체계적인 편집계획으로 여유 있게 원고를 청탁해야 알찬 편집이 가능하다. 나아가 교정기자나 자원봉사자 등의 확충으로 오자를 줄이고 더 좋은 문장의 기사로 한국의 정통 언론인을 양성하는 동대신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임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존중 앞장서야
기본적 생존권·의사표현 자유 보장

아무리 세상이 망해가는 것으로 보여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의 독재국들이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여성들의 지위 또한 예전에 비하면 크게 향상되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는 그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해주는 체제인가에 달려있다. 개인의 인권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사회는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인간해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이다.

대학사회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 대학은 그 외의 사회체제들에게 이상적이며 동시에 실현 가능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학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존중에 앞장서야만 한다.

현재 우리의 대학사회는 어떠한가? 구성원들의 인권 및 인간해방-왜곡된 생각이나 힘 등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자율적인 사고 및 능력에 의해 스스로의 삶을 펼쳐가는 -을 주요한 이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이 사회 속에 속해 있을 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를 떠나 다른 사회 범위 내에서 일하며 살 때도 우리의 대학사회에서 익힌 사유범주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시장경쟁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논리로 되어 가고 있다.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선 이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 치자. 그렇다면 더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장경쟁에서도 인간을,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거시적으로 내지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삼재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토토축구회 이재호의 여러명
 △재호오빠의 복학을 축하드리며 정은이와 재호오빠의 5백일을 축하드립니다.
 -팬클럽일동
 △지난 수요일 수연이형 생일 축하!
 -반도체과학과
 △성료와 종연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기가

수고하셨습니다

△한달동안 동고동락한 농성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한 학우
 △인문학부 99농성단 여러분 수고하세요. 좀 더 새로운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동국문화회 41대 운영위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해요. -새내기
 △배서방!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시골에서 꼭합격하길 바래. -주나니 형



태평양 건너 날아온 모교가 이렇게 좋을수가. 저 멀리 북미주동문 1백30명이 지난 10월 3일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서 후배들의 장구장단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미치 연어가 모천(母川)에 돌아온 것처럼...
 촬영=송광수 동문

‘적극적인 학생복지 필요하다’
학내사고 처리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번 백상체전 추곡예선 경기중 있었던 일이다. 지난 1일 국제관계(창도)학과와 정보산업(한바람)학과와 경기 도중 창도 소속인 노경원(법정학부1)학우가 한바람 소속 골키퍼와 충돌하여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왼쪽 골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는 비록 운동 경기중 학우간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긴 하지만 단순 골절이 아닌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이며, 더우기 백상체전이라 하면 대동제와 더불어 학교 전체에 있어서도 큰 행사이다.

그래서 부상학우에 대한 학교와 병원간의 연계조치나 학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학생복지실을 찾아가 논의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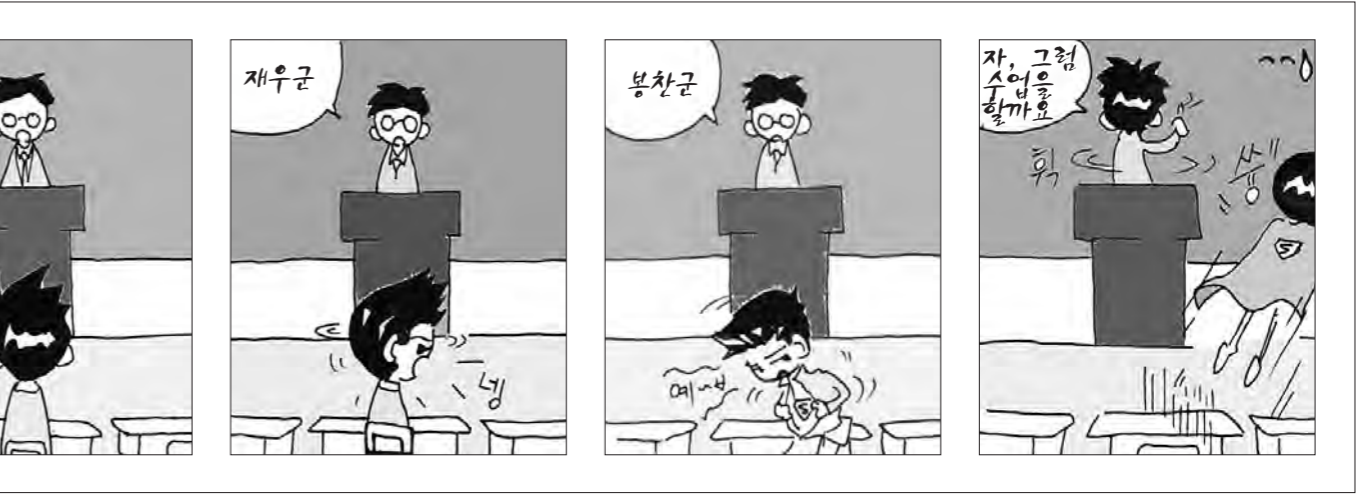
이 사고에 대해 "자기 몸은 자기가 행여하지 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느냐?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보험 조치" 등을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 최대한의 아닌 - 성의는 포함 수 있다.'었다. 정말 성의없는 발언이었다.

돌아서는 나의 심정은 학교에 돈이나 받으러 왔다가 못주겠다해서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가 언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는가! 단지 학교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문에서도 학교 생활을 해 오던 학우에게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구하려 했던것 뿐인데 말이다.

과연 누구의,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새로운 학사모형개편으로 학교를 포장하여 신입생만 많이 유치하면 학교가 발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막상 입학한 학생들의 작은 복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학교측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장병우 (법정대 학생회장)



온방글

축하합니다

△12대 자연대 학생회 회장님께서 장가 가신데요. 올생인들이 회장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97.진희 & 올샘
 △축하! 동국연극회 4학년들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투혼을 불살라라! -티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교과 여러분 체육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학회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맥스 화이팅! -수교인
 △말하오니 선배님들! 공·감 성공적으로 끝내신거 우리 다 함께 감격스러워해요. 수고하셨습니다! -14기 일동
 △현수형! MT 준비, 파트 제작하시느라 여가까지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파워풀하고 적극적인 모습 부탁드립니다. -한 학우가

알립니다

△동국문화회 사회전이 11월 3, 4, 5일, 5일에는 녹야원에서 시낭송회도 해요. 많이들 보러 오세요!
 -동문회 일원이
 △10월 14일 부산국제 영화제가 개막됩니다. 벌써 매진된 영화가 많아요. 서두르세요. -??
 △10월 24일 불교학생회 동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장

열심히 합니다

△'니르바나' 다음달 5주년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다시한번 힘내서 오라차!
 -3기 모화공주

그리고...

△윤화야! 군대를 간다니까 겁먹구나. 무사히 잘 갔다오구. 언제나 동아리방 열려있으니가 힘들면 전화해!
 -사랑하는 동기들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유부된장국(1300) 경상도닭은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하이라이스(1500)
화	김치양파국(1300) 사골탕면국(1300) 잡채달걀(1800) 오징어달걀(1600)
수	근대국(1300) 마역두부돼면장국(1300) 김치볶음밥(1600) 스파게티/고구마(1800)
목	김치국(1300) 호박김자된장국(1300) 돈까스(1500) 쇠고기말뽕(1700)
금	견세우이육국(1300) 참치미역국(1300) 설렁탕(1800) 카레라이스(1500)
토	김치수제비국(1300) 돈육달걀(1600)
일	쇠고기무국(1300) 채미볶음밥(1600)

(단위: 원)